

REUTERS WEEKLY NEWSLETTER

Monday, March 4, 2019 (2019-9 호)

- [주간 국내 일정](#)
- [주간 해외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지난주 주요 기사](#)

- ◇ (POLL)-최근 급등한 美 증시, 연말까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 (분석)-연준 성명 읽기 위해 더 이상 박사 학위는 필요 없다
- ◇ (초점)-금리 인하 논리 조목조목 반박한 한은 총재..커브 고민하는 채권시장
- ◇ (시장진단)-북-미 합의 불발에 달러/원 레인지 하향 이탈 기대감 사라져..박스권 강화 효과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마친 뒤 위원장의 회의 마무리를 기다리며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조나단 언스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24.7	0.0%	-0.8%	-4.1%	유로	1.1374	0.3%	-0.8%	-4.4%
100엔 대비	1,006.6	0.7%	0.9%	-6.9%	엔	111.90	-1.1%	-2.1%	2.8%
유로 대비	1,281.5	-0.7%	-0.4%	0.2%	위안	6.7078	0.1%	2.5%	-5.3%
위안 대비	167.96	-0.6%	-3.7%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026.32	0.0%	11.6%	-5.6%
코스피	2,195.44	-1.6%	7.6%	-17.3%	나스닥	7,595.353	0.9%	14.4%	-3.9%
코스닥	731.25	-1.6%	8.2%	-15.4%	S&P500	2,803.69	0.4%	11.8%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24.41	0.0%	9.9%	-16.2%
국고채 3Y	1.813%	-0.1bp	-0.4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876%	-0.9bp	-0.8bp	-45.9bp	미국채 2Y	2.557%	5.9bp	5.9bp	60.7bp
국고채10Y	1.987%	-2.1bp	3.9bp	-52.1bp	미국채 10Y	2.759%	10.5bp	6.8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5.80	-2.5%	22.9%	-24.8%	한국 5Y	27.88	-1.35	-10.19	-13.74
금(현물)	1,293.32	-2.6%	-0.7%	-1.5%	일본 5Y	19.17	-0.17	-2.62	-3.34
TR상품지수	2,375.78	-0.7%	0.2%	0.0%	중국 5Y	47.99	-2.47	-18.48	16.96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THOMSON REUTERS

주간 국내 일정

<3 월 4 일(월)>

- 경제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08:00)

<5 일(화)>

- 한은, 「통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발간
-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한은, 2018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08:00)

<6 일(수)>

- 한은, 2월말 외환보유액(06:00)
- 한은, 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 통계청, 1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7 일(목)>

- 경제부총리,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8:30)

<8 일(금)>

- 한은, 1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10 일(일)>

- 한은, (조사통계월보) 대외포지션이 외환 및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3 월 4 일(월)>

- 유로존, 3월 섹스 지수 (18:30)
- 유로존, 1월 생산자 물가 (19:00)
- 미국, 1월 내구재 주문 (~8일, 22:30)
- 미국, 2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3:45)
- 미국, 12월 건설지출 (자정)

<5 일(화)>

-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결과(12:30)
- 유로존, 2월 마르케트 서비스업 PMI(18:00)
- 유로존, 1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2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2월 마르케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3:45)
- 미국, 12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6 일(수)>

- 미국, 1월 연방예산 (04: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2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12월 무역수지 (22:30)
- 미국, 1월 내구재주문 수정·공장주문 (자정)

<7 일(목)>

- 연준 베이지북 발간(04:00)
- 일본, 1월 경기동행지수·경기선행지수 (14:00)
- 유로존, 4분기 고용지수·GDP 수정치 (19:00)
- 미국, 2월 철린저해고건수 (21:30)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 및 금리 발표 (21:45)
- 미국, 1월 무역수지·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4분기 노동비용 수정치 (22:30)
- 중국, 2월 외환보유고 (미정)

<8 일(금)>

- 미국, 1월 소비자신용 (05:00)
- 일본, 1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2월 은행대출·1월 경상수지(08:50)
- 일본, 4분기 GDP 수정치 (08:50)
-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실업률 (22:30)
- 중국, 2월 수출입 (미정)
- 미국, 1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자정)

<9 일(토)>

- 중국, 2월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10:30)

<외환시장>

-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A 주 비중 확대 등 부정적 재료들이 부상한 가운데 이번 주 초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 북-미 정상회담이 시장 예상을 벗어나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은 보수적인 대응에 나설 여지가 크다.
- 또한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A 주 비중 확대 파장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중국 증시 선전에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수 있다.
- 이번 주 예정된 굵직한 대외 이벤트로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5-13 일)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7 일)가 꼽힌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20 원-1135 원이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스피지수 등락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지수가 북-미 협상 결렬 후폭풍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느냐가 채권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 월보다 단호한 톤으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거리를 둬 따라 단기물 금리의 추가 하락 룬은 좁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3 월 대규모 채권 만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월말 자금 이슈가 해소되면서 단기물 매수세가 다소 풀릴 여지도 있다.
- 시장에선 5 일 개막하는 중국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정책조합을 내놓느냐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인식도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7 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CB 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시장에 각인시킬 경우 역시 위험자산 가격이 반등할 여지를 키울 수 있다.

(POLL)-최근 급등한 美 증시, 연말까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뉴욕 (로이터) - 최근 몇 달간 급등한 미국 증시가 부진한 기업이익 전망에 올해 소폭 상승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략가 50 명을 대상으로 지난 2 주 동안 진행된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2019 년 말 전일 종가인 2,793.90 보다 약 3.7% 상승한 2,900 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 년 말보다 15.7% 오른 것이다.

그러나 11 월 조사 전망치 2,975 는 밑돌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도비시한 신호를 보내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S&P500 지수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 월 성적을 기록한 2018 년 말 매도세에서 벗어났다.

연준 정책과 경제 성장, 무역에 대한 우려는 현재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략가들은 기업 이익이 올해 미국 증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몇 달간 2019 년 기업 이익 성장을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레피니티브 IBES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수익은 올해 4.1% 성장에 그쳐 작년 1 분기에 비해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참가한 전략가들 대부분은 올해 중반까지 세계 증시가 급등할 확률보다는 급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올해 종가는 26,500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1 월 조사 당시의 26.865 를 밑돌았다. 그러나 전일 종가에 비해서는 1.7%, 2018 년 말에 비해서는 13.6% 상승한 것이다.

또한 S&P500 지수는 2020 년 종순까지 3,000 을 기록할 것으로, 다우지수는 2020 년 6 월 말까지 27,311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연준 성명 읽기 위해 더 이상 박사 학위는 필요 없다

워싱턴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성명은 지난 경기 침체 이후 매우 복잡해졌으며 성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대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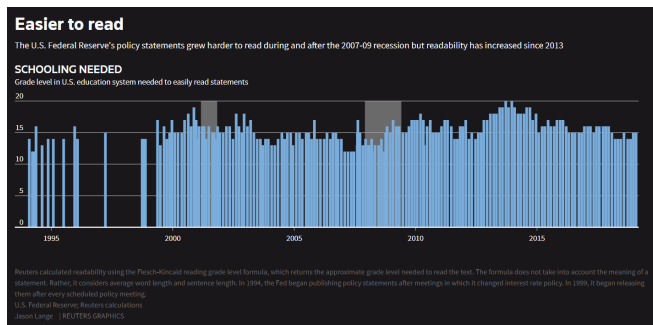
그러나 로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연준 의장 취임 후 이는 변화하고 있다.

2018년 2월 제롬 파월 의장의 취임 후 연준 성명은 덜 복잡해졌으며, 기자회견 연설 또한 이해하기 쉬워졌다.

연설의 변화는 의사소통을 단순화하려는 파월 의장의 노력으로 나타났지만, 성명의 변화 중 적어도 일부는 연준이 채권 매입, 정책 포워드 가이드스 등 2007~9년 경제 위기 당시와 그 이후까지 이어졌던 비전통적인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을 더 전통적인 정책으로 대체하며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명료한 발언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일부 발언은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 단순한 발언 역시 리스크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플래시-킨케이드 단계로 알려진 표준 이독성(reading) 공식은 사용한 로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 연준의 정책 성명을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 3년의 대학 과정이 필요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긴 단어와 문장에 대한 텍스트 의존도를 측정한다. 연준이 국채 매입과 그 공식은 큰 단어와 긴 문장에 대한 텍스트의 의존도를 계산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ed)가 국채와 자산담보증권 매입 등 복잡한 도구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경기 침체 후 연준 성명의 텍스트 복잡도는 경기 침체 후 오르기 시작해 2013

년 말 정점을 기록해 독자들에게 박사 학위 수준을 요구했다.

텍스트 복잡도는 재닛 옐런 의장 재임 첫해인 201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옐런 의장의 재임 마지막 3년간 복잡도는 계속해서 하락해 평균 4년제 대학 학위 수준 정도인 16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 재임 동안에는 더 내려 고등학교 독서 수준을 소폭 웃도는 15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자들은 과거에 연준 의사소통이 복잡할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최근의 복잡도 감소가 연준의 조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향상시켰는지, 금융시장은 성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학자이자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인 찰스 칼로미리스는 "낮은 복잡도가 낮은 변동성을 불러온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연준의 언어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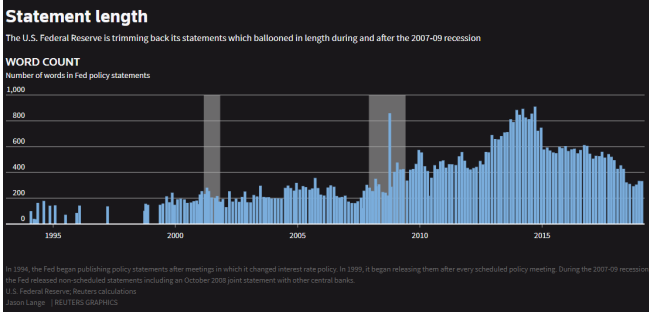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와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해 확신을 잃으며 시장 변동성은 최근 몇 달간 증가했다.

이번 로이터 조사는 1994년부터 2014년 초반까지의 의회 증언을 분석해 높은 독해능력을 필요로 하는 증언일수록 시장 움직임이 컸다는 사실을 밝힌 델러스연은 이코노미스트들의 2016년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데이비드-안 안센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의장의 증언 독해가 쉬워진 후 중기 금리가 덜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칼로미리스와 안센 모두는 텍스트 복잡도 분석이 분석하는 단어들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통화정책의 긴축이나 완화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 조합을 이용해 이를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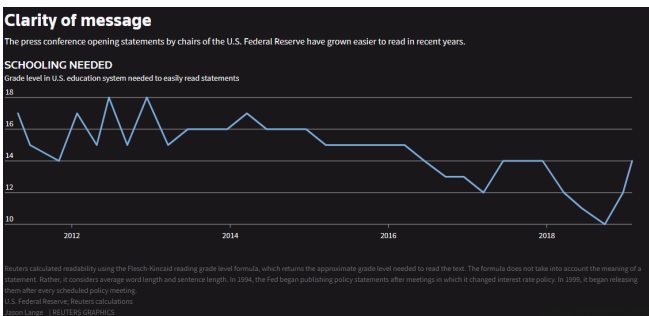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연준 대변인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6일 정책입안자들이 정책 성명을 시장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동안, 자신은 발언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교육자 회담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5개 개회사의 평균 텍스트 복잡도는 12로,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을 수준이다. 앨런 전 의장의 마지막 5개 개회사의 평균은 14로, 대학교 2학년 수준이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금리 인하 논리 조목조목 반박한 한은 총재..커브 고민하는 채권시장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이 총재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만큼 당장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내외 경기 둔화 조짐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통위의 '현상 유지' 스탠스가 확인된 만큼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 전망도 여전히 우세하다. 다만 역캐리 국면 장기화 가능성, 남북 경제협력 등 새로

운 변수가 시장참가자들의 계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총재, 금리 인하 논리 조목조목 반박

이 총재는 28일 그동안 시장에서 나온 금리 인하 필요성 주장을 분명한 어조로 반박했다.

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의 과도한 비관론과 거리를 뒀다. 시장에선 올해 GDP 갭 마이너스폭이 확대되며 금통위의 판단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총재는 지난달과 같이 국내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 감소로 최근 경제 심리 지표가 반등하는 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하회하는 등 낮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처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단이 한은 통화정책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논리에도 다른 의견을 밝혔다. 연준이 당장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통화정책의 큰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5.8%로 2014년 2분기(5.7%)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올해 들어서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게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고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한 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가계부채 누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금융불균형 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반기 금리 하락..커브 플랫 전망 유효한가

이 총재가 시장의 '설레발'을 나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 하락 모멘텀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다.

문제는 하반기다. 그동안 시장에선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 연준의 완화정책 스탠스가 뚜렷해지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수준까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 등이 위험자산 시장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는 데다 남북 경험 본격화 등 새로운 재료가 부각되면서 채권운용역들의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하반기에 시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통위가 이번에 야말로 독심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을 경우 역캐리만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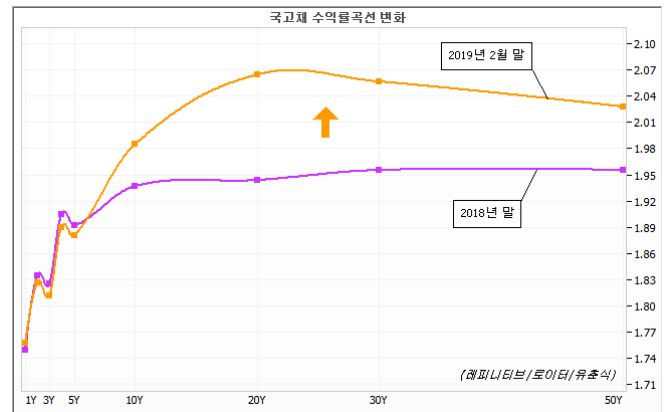
이 경우 커브 플랫닝이 유일한 탈출구인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간과할 수 없다. 당장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전망으로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남북 경험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장기물 수급을 안심할 수 없다.

증권사의 한 채권본부장은 "정부가 갑자기 돌아서지 않는 한 한은은 현재의 동결 기조를 가장 마지막까지 사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커브 플랫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1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붙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시나리오 역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캐리를 감수하고 계속 버텼는데 한은이 끝까지 인하하지 않는다면 일단 올해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솔직히 4월이나, 7월에 금리가 인하될 보장도 없다"며 "여기서 남북 경험이라도 본격화되면 적자국채 발행이나 공사채 발행 확대로 장기 커브는 오히려 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커브 플랫으로 들었었던 곳들이 3월에는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커브가 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진단)-북-미 합의 불발에 달러/원 레인지 하향 이탈 기대감 사라져..박스권 강화 효과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끝났지만 달러/원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산적인 시간이었다"라면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 결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는 동의했지만, 더 많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전만으로도 낙관적이라면서 이번 회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달러/원 환율은 1118 원에서 1124 원 선까지 속등했다. 하지만 역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음은 주요 외환딜러들의 반응이다.

▲ A 은행 외환딜러

환율이 1120 원대로 레벨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가 아닐까 한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도 아니고 연장된 정도라고 본다. 회담을 앞두고 기대가 반영되기는 했지만 환율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회담이 결렬되

면서 환율은 다시 1120 원대 레인지로 복귀하게 된 셈이다.

▲ B 은행 외환딜러

최근 원화가 달러인덱스나 위안보다 좀 더 강세 흐름이었는데 이같은 흐름이 되돌려진 수준이라고 본다. 북한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건이지만 협상 판이 깨지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 이미 결렬을 마음먹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밀렸다는 느낌이 들고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달러가 악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달러/원 환율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

▲ C 은행 외환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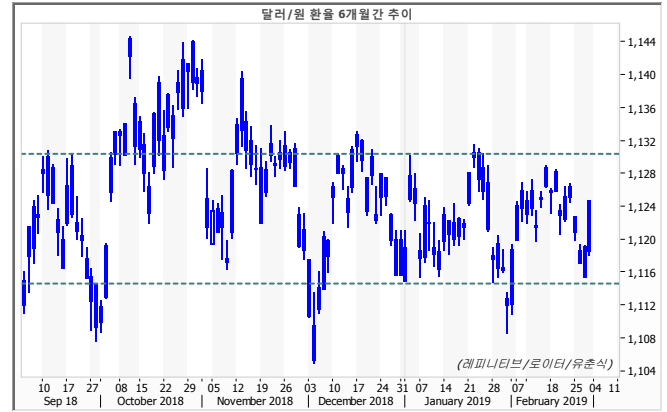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반응은 이 정도까지로 본다. 정상회담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1110 원 초반대로 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력도 오래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합의가 불발된 데 따라 환율이 올랐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한다.

▲ D 은행 외환딜러

일단 단기적으로 숏커버 재료다. 월말 네고도 거의 끝난 시점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무역분쟁 관련 악재 재료가 불거진다면 환율은 1130 원 부근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본다.

▲ E 은행 외환딜러

협상 불발로 레인지 하단 돌파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본다. 환율이 반등하니 장 막판에 네고 업체가 물량을 내놓을 걸 봐서 환율이 상승 쪽으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은 더욱 없다고 본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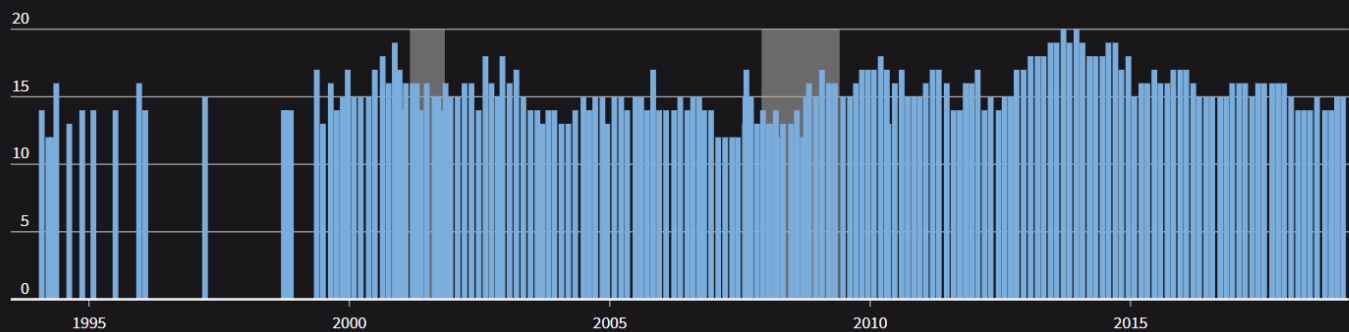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Easier to read

The U.S. Federal Reserve's policy statements grew harder to read during and after the 2007-09 recession but readability has increased since 2013

SCHOOLING NEEDED

Grade level in U.S. education system needed to easily read statements



Reuters calculated readability using the Flesch-Kincaid reading grade level formula, which returns the approximate grade level needed to read the text. The formula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meaning of a statement. Rather, it considers average word length and sentence length. In 1994, the Fed began publishing policy statements after meetings in which it changed interest rate policy. In 1999, it began releasing them after every scheduled policy meeting.

U.S. Federal Reserve; Reuters calculations

Jason Lange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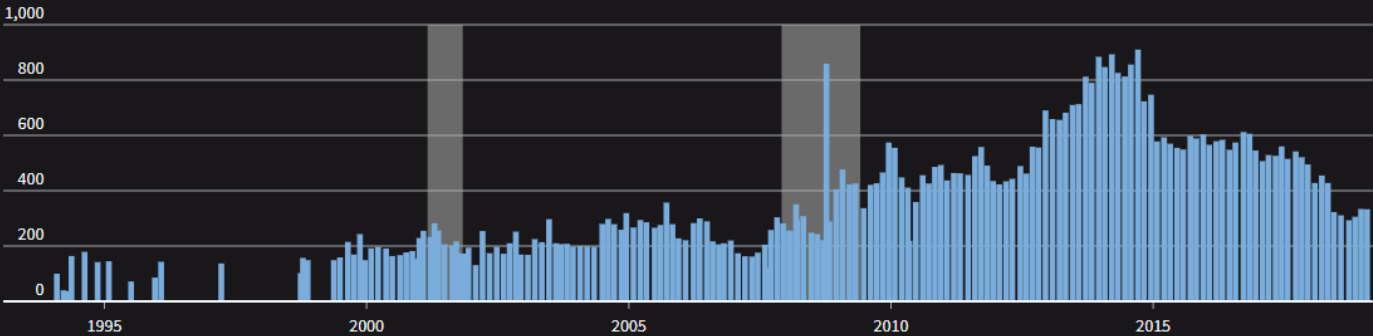
THOMSON REUTERS

Statement length

The U.S. Federal Reserve is trimming back its statements which ballooned in length during and after the 2007-09 recession

WORD COUNT

Number of words in Fed policy statements



In 1994, the Fed began publishing policy statements after meetings in which it changed interest rate policy. In 1999, it began releasing them after every scheduled policy meeting. During the 2007-09 recession, the Fed released non-scheduled statements including an October 2008 joint statement with other central banks.

U.S. Federal Reserve; Reuters calculations

Jason Lange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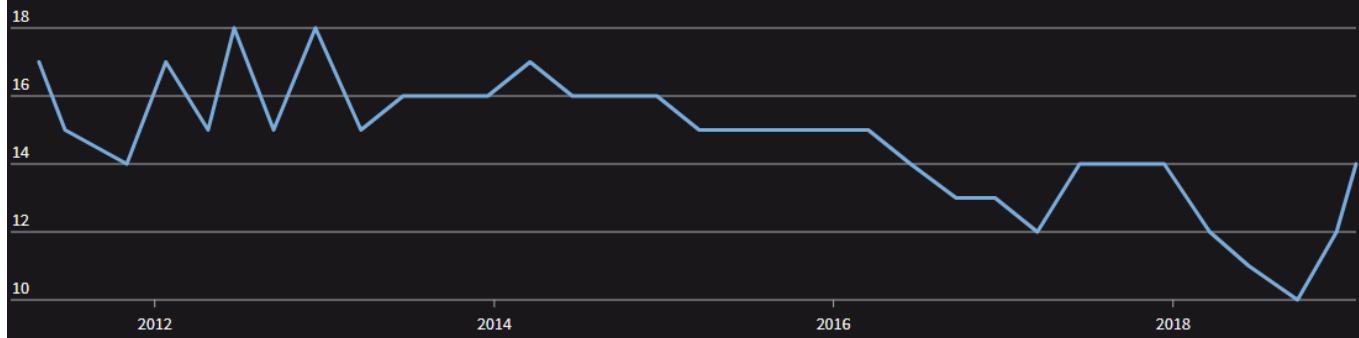


Clarity of message

The press conference opening statements by chairs of the U.S. Federal Reserve have grown easier to read in recent years.

SCHOOLING NEEDED

Grade level in U.S. education system needed to easily read stat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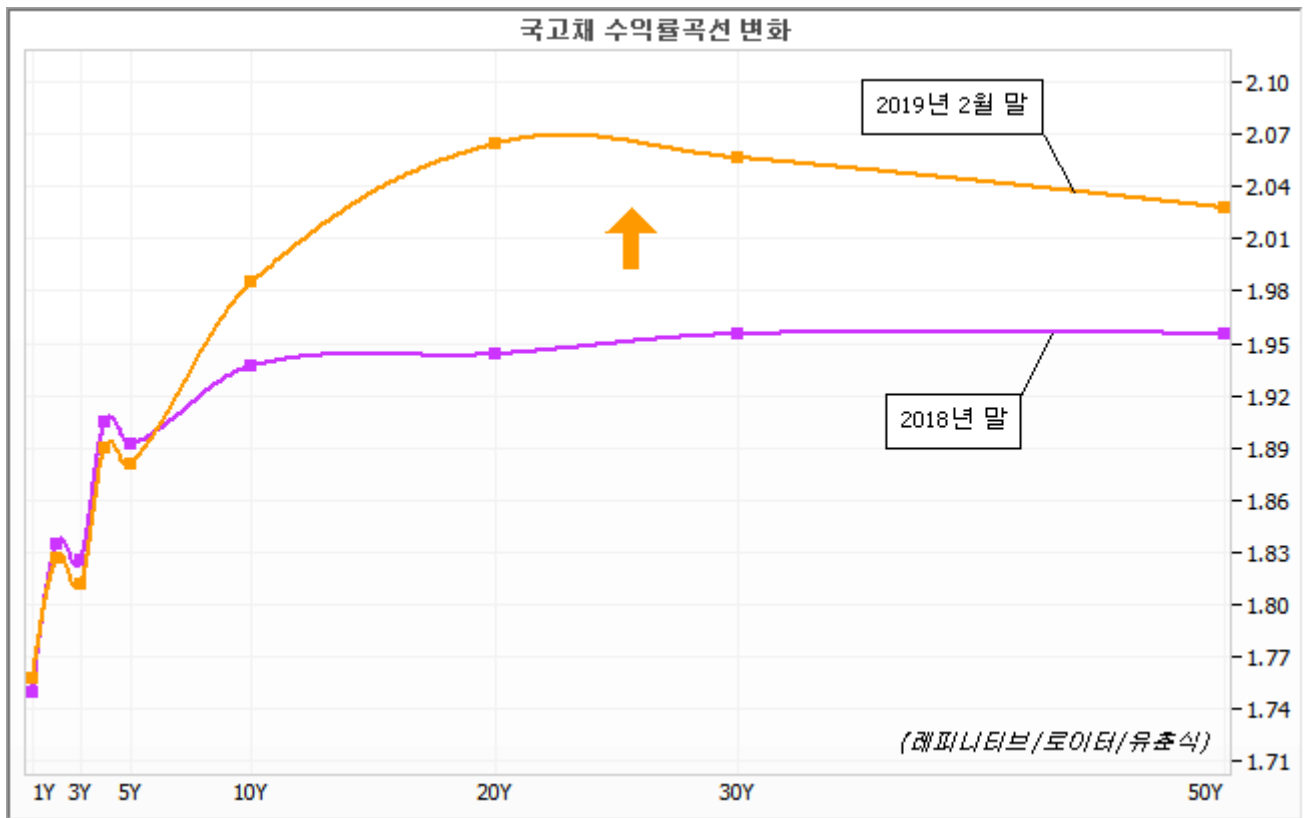


Reuters calculated readability using the Flesch-Kincaid reading grade level formula, which returns the approximate grade level needed to read the text. The formula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meaning of a statement. Rather, it considers average word length and sentence length. In 1994, the Fed began publishing policy statements after meetings in which it changed interest rate policy. In 1999, it began releasing them after every scheduled policy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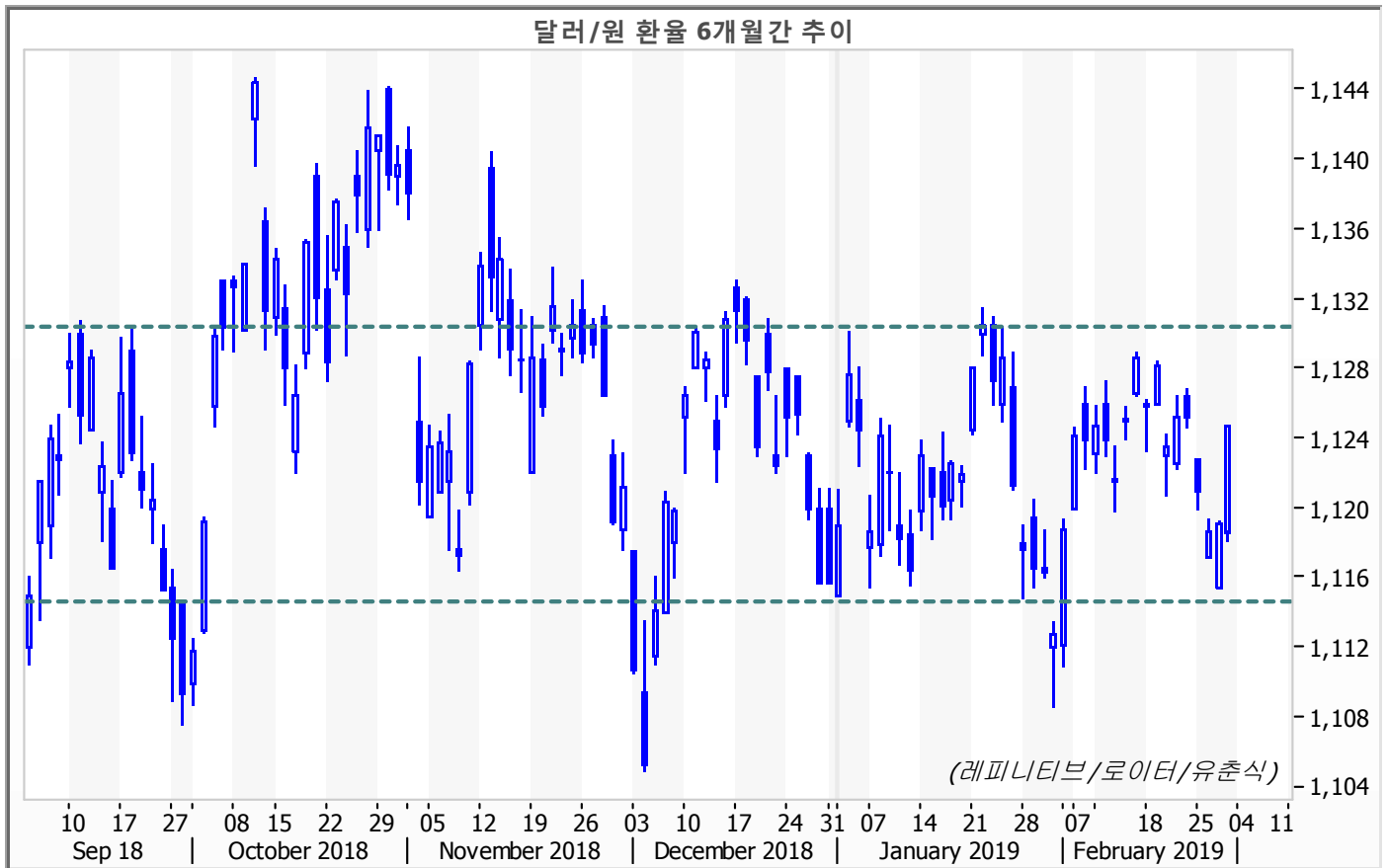
U.S. Federal Reserve; Reuters calculations

Jason Lange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